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민족의 큰 명절 설을 맞아 모든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연휴기간에도 방역에 힘써서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 교회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기대연에서 주최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설명회가 9일(화) 오후 8시 화상(줌)으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6 호

2021년 2월 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일용할 커피 선교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한국수제커피협회(협회장 강유겸 목사)에 들어서자 고소한 커피 원두 냄새가 먼저 반겼다. 협회 사무실이자 커피공방으로 활용되는 공간에는 로스팅 기계와 커피머신, 콜드브루 메이커, 각종 원두와 로스팅 전의 초록색 생커피콩 등 커피 관련 물품이 가득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선교사 부부 세 쌍과 목회자 부부 한 쌍이 강유겸(49) 목사에게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한국에 발이 묶인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돌아가기 전 준비하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자 자립 수단으로써 커피를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역을 마련했다. 커피의 역사부터 원두 로스팅, 핸드드립과 커피머신 이용법, 카페 창업 컨설팅까지 3개월여의 교육과정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을 마치면 협회에서 발급하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다.

강 목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후원이 줄고 선교지 상황도 더 척박해지는 등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며 “커피를 매개로 더 효과적인 선교를 꿈꾸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자립을 목표로 카페 창업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10여년 전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을 다녀오기도 한 강 목사는 선교지 상황에 비춰볼 때 커피가 선교의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 선교사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커피 생산국이고,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커피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기호품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교지에선 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커피를 활용하면 생산자는 물론 커피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단순히 즐기는 사람들까지 많은 이들과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제커피협회 겸 커피공방 ‘일용할 커피’ 입구 모습. 강민석 선임기자 강 목사가 3년 전 협회를 설립한 것도 커피선교를 위해서다. 아내의 난소암 투병으로 선교사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온 후 우연히 커피를 접하게 된 그는 커피를 복음전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협회에서 주민들과 커피 모임을 하는 등 커피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지난해 라오스와 우크라이나 등에도 수제커피협회 설립을 준비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계획이 연기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무료 교육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커피 원두나 콜드브루 원액을 배송해 주는 ‘일용할 커피’ 서비스의 수익금으로 선교사와 목회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강 목사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커피가 선교와 목회의 훌륭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협회에서 복음의 사명을 지닌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 선교사처럼 파송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21-01-19

디아코니아사랑방 해 은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34편

제목 : 신실하신 주님을 경외(찬양)하는 의로운 사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기도 : 서병욱 집사

찬송 : 410 386 441 393 26

1-3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다.

관찰: 비천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해석: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노래, 찬양한다.

적용: 어려울 때 찬양하자. 말씀을 외우자.

4-14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관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한 일만 하여라.

해석: 하나님을 깨달는 것은 하나님에 생각하고 궁리(고민),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

적용: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기 위해 생각하고 노력하자.

15-21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신다.

관찰: 주님(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여 낙심한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지켜주신다.

해석: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지 않으시고 과정도 중요하게 보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성실하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신앙 생활을 성실히 하자.

성서일기

친구

생애 동안 많은 적대감에 부딪혔고 그것을 극복했던 위대한 유대인이자 하나님의 사람 마르틴 부버(Martin Buber)가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퀘이커 학교인 하버포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 북미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더글라스 스티어(Douglas Steere)라는 사람의 집에서 열린 퀘이커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중에 한 사람이 침묵을 깨뜨리고 언어와 인종과 종교적 장벽을 초월하여 만남을 갖는 위대한 경험과, 그러한 장벽들을 넘어 다른 사람과 사귄 수 있다는 경이와, 낯선 이를 친구로 변하게 하는 사귄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부버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다. (부버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강인해 보이는 얼굴과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눈빛에 대해 말하고 한다. 그는 마치 예언자와 같은 인상을 풍겼다.)

부버의 말인즉,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위대한 경험이긴 하지만 가장 위대한 경험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굳게 다져 주는 것이다. 즉, 시간을 들여서, 상대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그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 그것을 굳게 다져 주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난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를 쏘아보고 즉석에서 판정을 내린 다음 어떤 범주에 포함 시켜 버리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우리 이하의 존재로 대우한다.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 이하의 존재가 되어 간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와는 다르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우리에게 흠집을 내려 하지 않고, 우리의 속 생각을 알아주며, 내적 신념을 따르려는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굳게 다져 준다.

그는 바로 친구다.

유진 피터슨.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중에서.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전도사
설교자 : 권재만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디모테전서 6 : 14-15	인도자
*예배의 찬송	35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이사야 43 : 25	인도자
*용서의 말씀		다함께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405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왕하 5:1-3, 15-17, 20, 25-27	설교자
성가대 찬양	293	사랑방
설 교	“ 같은 종, 다른 믿음 ”	권재만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342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55(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최상득, 백성복 / 봉헌위원 : 최상득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만물을 질서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혹속에서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같은 종, 다른 믿음

여종과 게하시. 나아만은 전쟁영웅이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스라엘 출신 여종이 나아만의 병을 위해 조언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
리사의 명령에 화가났지만 그대로 행하여 병이 낫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
은 엘리사에게 보상을 하기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 보상을 받지 않고 나아
만 장군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엘리사의 보좌관인 게하시는 나
아만을 따라가 옷과 은 두 달란트를 받습니다.

몰래 유혹하는 죄. 게하시는 엘리사의 가장 신뢰받던 제자입니다.
게하시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잘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하
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거짓말을 했으며 자신이 얻은 재물을 숨겼으며 무엇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사사로
운 욕망에 눈이 멀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여종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으며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사랑의 마
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통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나를 보십시오. 미디어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적시고 있습
니다. 내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욕망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직책, 외적인 모습에 집
중하지 맙시다.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으로 가 씻읍시다. 우리 주변에 나
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
음을 아기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전도사 / 기도 : 백성복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

“하민이는 그냥 놀지 않았어요”

7년 인생에 있어서 자랑스럽고 빛나는 순간인 졸업의 과정을 2번 모두 사랑방공동체 학교에서 하게 되어 섭리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재롱이의 과정을 통해 ‘우린 그냥 놀아요’ 꾸러기로 입학했었던, 3년전의 시간이 아직도 제겐 몽클한 감동의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꾸러기만 가라~꾸러기만 가’라고 풍문으로 들었던 기쁨의 소식이 저에게도 왔었던 겁니다.^^

최근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남양주에 있는 작은 수목원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 곳은 공동체로 오기전 서울에서 살면서 하민이를 뺏속에 품고 갔던 곳이었기도 했었죠. 세명 모두 신이 나 날뛴 망아지처럼 여기 저기 뛰어 다니기 바빴습니다. 토끼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등 작은 동물들 먹이 주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한쪽 나무엔 다람쥐가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작은 철망길을 해 놓았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려고 고개를 빼꼼 하는 순간 옆에 있었던 가정에서 환호의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봐도 사람의 경험에 따라 느껴지는 결과물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꾸러기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스치며 만나고 인사 했던 다람쥐만 해도 몇십마리는 될 것입니다. 하민이가 경험했던 삶이 진짜이기에 참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꾸러기에서 갔었던 곳이 더 좋다” 라고 덧붙이는 아이를 보며 웃음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꾸러기 3년의 시간이 참 감사하고 아쉽고 하민이 삶에 멋진 스케치를 해준 것 같아 뿌듯합니다. 특별히 쌍둥이 동생들을 맞이한 하민이에게 꾸러기는 행운이었습니다.

꾸러기 엄마라면 동일하게 느꼈던 5세 외박감동의 베개의 날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보내는 엄마도 받아주시는 선생님들도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꾸러기만 들어오면 무조건 프리패스 하게 되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선생님들이십니다. ^^ 쪼그만 가방에 자기얼굴보다 더 큰 베개를 넣고 아침일찍 꾸러기를 향하는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경험치 못한 저는

배움과 가르침

그 포부를 헤아리진 못하겠으나, 그 아이 역시 감동의날 일거라 짐작해 봅니다. 하민이 5세때 목사고시를 앞두고 참가했던 초긴장 아빠캠프는 정말이지 다이내믹 했었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그때의 떨림과 아쉬움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옆에서 삼촌으로 맹활약해 주신 어진전도사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매주 한번씩은 부역이 난장판이 되어도 좋은 견학시간은 꾸러기들에겐 최고입니다.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아이들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시며 상담해 주시는 관심어린 시간은 저를 단단하게 객관화 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6세때 육아는 가장 답답했던 시기였지만 그땐 정말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신뢰가 있어야만 해결할수 있는 과정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본질의 것을, 또는 내가 경험했던 최고의 순간이나 경험치 못했던 아쉬움들을 더해 선물로 주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자연에서 휴과 함께 경험했던 어린날의 시간속에 하민이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어 기쁘고 이 아이가 품을 세계가 기대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경험하기에 꾸러기의 보석은 아이에게 최고의 짝꿍이 되어 3년간 누리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함께 짝이 되는 첫 번째 사회생활연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과 따듯한 느낌, 시원한 아자작소리, 솜사탕구름, 맑은 하늘, 비온뒤 고랑에서 뿔 때 튀기는 첨병소리, 하얀마법가루가 내려오는 차가움 등... 수많은 경험들로 비롯된 느낌들을 그대로 흡수시키는 유년기를 멋진 자연속에 있는 꾸러기장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받는 관계의 짝꿍입니다. 5,6,7세 때 만났던 꾸러기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시간과 선생님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아이와 가정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꾸러기였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좋은 짝을 만난다는 건 중요한 일인데, 이 어린 시절 그 대단한 걸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좋은 짝꿍이 되어주는 빛나는 꾸러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꾸러기만 가라~꾸러기만 가” 라는 풍문으로 들었소 시즌2가 우리 가정에 또 시작됩니다.

입학생 권하온이 권하성이 잘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꾸러기학교 권하민 엄마

코로나 19로 떨어진 성도간의 관계,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관계

다사다난한 2020년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눈 많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온 눈은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너무 자주 주셔서 몸도 힘들고, 길이 미끄러우니 이제는 한 번에 몰아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아무도 안 오는 고요한 사랑방은 1년 중 쉽게 못 보는 하얀 옷을 입고 조용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싱글 선생님들 몇 명이 모여서 성서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회 문제도 있고,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교회에 못 나오는 날이 많은데 이렇게 성서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몸이 짜릿할 정도로 좋고, 참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다함께 시편을 보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시자들은 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편을 보면 매번 같은 말을 해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고,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교회 문제로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를 했는지 큰 문제를 겪으니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들어주시는 것도, 해결해주시는 것도, 위로해주시는 것도,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혼자 외로우니 몇 십 명 되는 식구들을 함께 살게 해주시는 것도, 삶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공동체를 허락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랑방식구들을 못 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생 성도의 교제와 방모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생활이 없던 적이 없었는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은 아직도 낯설고 어렵습니다. 성도간의 소통은 어려워졌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더 많아졌습니다. 당연했던 공동체 삶은 지금 갖기 어렵지만 관계의 부재를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해주심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로 나의 부족함,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성도의 교제가 어려운 시기에 모두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날을 기다리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람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창세기 15 : 5-6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미얀마의 민주화>

미얀마[버마]는 군부가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석 25%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이 이루어졌고 국민민주연맹이 62%를 확보, 의석할당 헌법 개정을 요구하던 중, 2월 1일 군부가 선거 결과를 불복하며 의회와 정부를 해산, 민주정부의 주요 정치인들을 연금하였습니다. 많은 국민과 국제 여론이 이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고 미얀마 국민들이 자유를 경험하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보나콤>

1) 의성의 건축이 계속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2) 보은에 온라인 예배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공동체 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무림리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온화해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새해 첫 달이 어느덧 다 지나고 벌써 둘째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겨울은 눈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지난 목요일에 함박눈이 발목 높이까지 내렸습니다. 며칠 전에 태어난 4마리의 강아지가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이틀 후 날씨가 풀어져서, 많이 쌓여있던 눈이 정말 '눈 녹듯' 하루 만에 다 녹았습니다. 새끼를 낳은 후 어미 개 '루'를 풀어놓고 있는데, 그 덕분에 공동체 주변의 고양이들에게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자 공동주택 지붕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다행히 피할 곳이 많아서, 개와 고양이 모두 다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한 동안은 곳곳에서 고양이들을 볼 것 같네요. 새봄이 어서 오고, 코로나의 위협이 끝나는 날이 어서 와서 모두 걱정 없이 지내는 날을 기다립니다. <정재훈 전도사>